

장애인 연금 수급기준 7월부터 '등급'→'정도'로 변경 소득 하위 70%는 기존 수준 유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바뀌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던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변경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중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전 4~6급)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등급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지급대상이었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

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291명이다.

복지부는 새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고시하면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를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수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기존 수급자는 변동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남구 대성초등학교에서 지난 17일 열린 '건강한 돌봄 놀이터 영양 조리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직접 간식을 만들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우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광주시 서구, 찾아가는 경로당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고위험군 어르신 대상

광주시 서구는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주 1회 총 4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선별된 인지저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학습지, 퍼즐, 실버테크레이션, 웃음치료, 노래교실, 뇌운동체조 등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뇌를 자극하고 뇌기능향상을 촉진해 치매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맞춤형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울감 감소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관계자는 "치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치매관련 정보와 뇌를 활성화시키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매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경로당 인지강화교실 참여 및 기타 치매상담 등 궁금한 사항은 서구치매안심센터(062-350-4767)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아수라장'

서구청소년수련관 7월부터 ... 어울림마당 '꿈틀 꿈틀' 개최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고 서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최근 광주시 서구 마재근린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꿈틀 꿈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

사는 청소년드림가요제, 진로체험마당,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드림가요제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친 12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뤘다.

진로체험마당에는 디자인, 타투(문신),

코딩, 제빵, 바리스타 등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20일에는 대형풀장을 이용한 물놀이 '아수라장'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광주서구청소년수련관(062-654-431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초등생 돌봄놀이터 영양 조리교실 인기 만점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운영 중인 '건강한 돌봄 놀이터 영양 조리교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대성초교와 무학초교, 농성초교에서 생활 요리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 2차 영양 조리교실'을 운영한다.

3개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1~2학년 학생 9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간식인 닭 가슴살 토피야를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

건강간식 만들기 체험 바른 식습관 배우기도

다.

또 음식 만들기 체험활동이 끝난 뒤에는 간식으로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와 건강간식에 대해 알아보는 자유토론 및 영양 교육에도 함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23일에는 같은 학교에서 1차 영양 조리교실이 열렸다. 총 84명의 학생들이 참여, 건강간식으로

감자 야채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했다. 학생들은 건강간식과 설탕·초콜릿 등이 듬뿍 담긴 먹거리 중 어느 것을 먹어야 할지 토론하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남구 관계자는 "영양 조리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의 달라진 식습관 태도를 보고 일부 학부모들은 놀라는 모습이었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노인학대 감소 추세

지난해 202건 ... 2017년 240건 보다 줄어

지난해 1년간 광주시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가 2017년 대비 15.8%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노인학대 건수는 2016년 229건·2017년 240건·2018년 202건으로 잠시 늘었다가 다시 감소 추세다.

이 보고서는 전국 31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광주지역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183건, 병원 12건, 공공장소 3

건, 기타 3건, 노인복지시설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89.1%가 친족이었으며 이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많았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들 37.2%·배우자 27.5%·딸 7.7% 순으로 조사됐다.

류미수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노인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으로 노인학대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민연금 수급중 조기사망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7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